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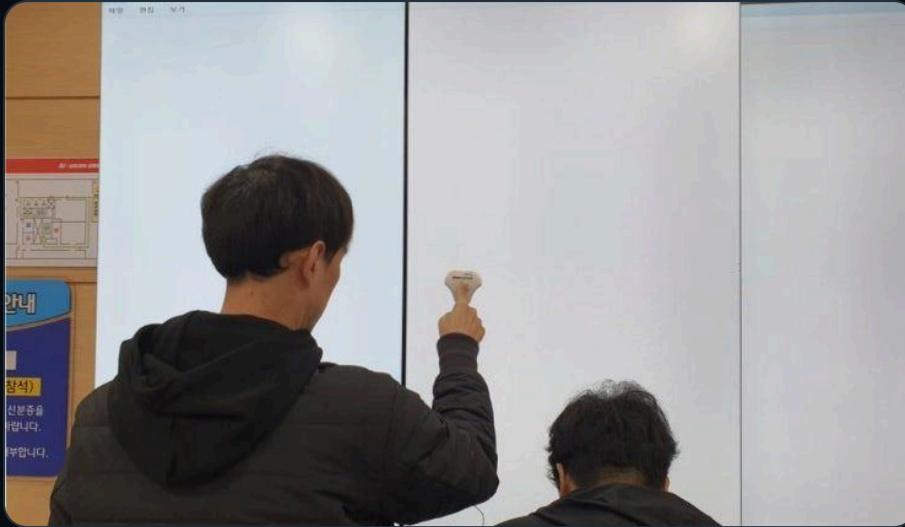
LED전광판

기술 가이드

2026-10-04 · (주)연우솔루션 작성 · 사진 10장

관급자재 사이니지, 벽은 누가 먼저 여는가

석고보드는 이미 붙었다. 퍼티가 마르는 중이고, 도장은 내일이다. 그 벽에 다음 달 55인치 화면 아홉 대가 걸린다는 사실을, 벽을 세운 팀은 듣지 못했다. 내역서에는 '영상장비 — 관급자재'라고만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원문 수록 이미지 · 원문 전체 사진은 홈페이지 현장 사례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01 석고보드를 달기 전, 180kg이 걸릴 자리를 먼저 세운다
- 02 전원은 화면 뒤에서 끝나고, 배관은 커넥터 머리가 지나가야 한다
- 03 공정표 위에 사이니지의 이름을 다섯 번 올린다
- 04 준공 서류가 닫힌 뒤에도, 화면은 그 벽에 남는다

관급으로 나온 사이니지는 장비보다 순서에서 먼저 들어진다.

누가, 언제, 벽과 전원을 놓고 마주 앉는가의 문제다.

관급이라는 두 글자가, 벽의 주인을 둘로 나눈다

본문 속 수치

55인치

그 벽에 다음 달 55인치 화면 아홉 대가 걸린다는 사실을, 벽을 세운 팀은 듣지 못했다.

20kg

패널 한 대를 20kg 안팎으로 잡으면 아홉 대가 180kg, 여기에 브래킷 무게가 더해진다.

100mm

스터드 사이에 50×50 각파이프 프레임에 세워 슬래브에 고정하고, 그 위에 합판 18T를 화면 외...

150mm

앞으로 당겨 점검하는 팝업식 브래킷을 쓰면 벽면에서 화면 앞면까지 150mm 안팎이 필요하다.

관급자재 분리발주는 발주기관이 화면을 따로 계약해 현장에 내려주는 방식이다.

건물을 짓는 시공사의 도급 내역에는 화면이 없고, 화면을 납품하는 업체의 계약서에는 벽이 없다.

화면을 버릴 벽체 보강, 화면 뒤 전용 콘센트, 신호선이 지나갈 배관.

적용 디스플레이

멀티비전·비디오월 · DID·사이니지 모니터

구성 요소

CMS·스케줄 송출 · 콘텐츠 제작 · 3D 모델링·설계 · LED 컨트롤러·송신카드 · 미디어 플레이어·셋탑

진행 단계

현장 실측 → 구성 제안·설계 → 제작·발주 → 설치·시공 → 시운전·인수 교육 → 운영·유지보수

관련 솔루션

Windows 10 지원 종료 · 노후 플레이어 전환

찾은 현장 출동

교육 · 대학 · 학교

N2SF 전환 · 보안 DID

이 가이드로 상담

☎ 010-2700-2648 · ✉ osskoreaing@gmail.com

원문 · 사진 전체: screenmaru.co.kr/blog/224430937491.html



연우솔루션
YEONWOO SOLUTION

기술 가이드 937491